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수난 성지주일

제36권 17호(다해) 2016년 3월20일

[목사]



<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

"호산나 다윗의 후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무참히 배반당하고 버림받게 된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가?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느님께도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듯하다

왜?

십자가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느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교자 하심이다.

한번만으로 족하다.

두 번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는 삶은 말아야 한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명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넷째주)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30 오후 1:00 오후 1:00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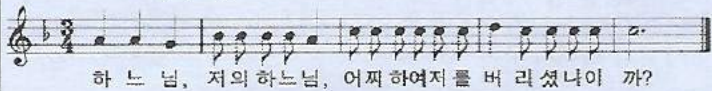
한국 교회의 역사

토요 저녁 미사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
	(생)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Isaiah) 50, 4-7

화답송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뺨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내놓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2, 6-11

복음 환호송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수난복음 루카(Luke) 22, 14—23, 56 <또는 23, 1-49>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49	149	169
봉헌	155	155	165, 167
성체	296	296	163, 168
파견	151	151	170

4. 박해의 원인과 순교의 의미

4-1. 박해의 원인

그런데 박해를 피하려고 숨어 사는 천주교 신자들도 이 들처럼 비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쳤으며, 관리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민중 봉기에 동조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 때문에 집권층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을 도둑 떼와 같이 여겨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었다. 당시의 불안정한 사회상은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한편 박해가 일어난 데에는 당시 교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동양에 천주교가 선교되던 초기와는 달리, 교회는 18세기에 들어와서 동양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너무도 인색하였다. 그리하여 동양의 미풍양속에 속하는 조상 제사마저 미신으로 여겼다. 교회 당국의 이와 같은 생각은 동양의 기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으로까지 해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천주교 박해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상 제사의 금지는 박해의 빌미가 되었고 당시 교회 지도층의 편협한 태도에서도 박해의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회는 1930년대에 이르러 조상 제사에 관한 문제를 다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상 제사가 지닌 부모에 대한 효성만을 올바르게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천주교인들은 조상 제사를 떳떳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4-2. 순교의 개념과 의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이전 조선의 교회는 언제나 박해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물론 박해가 항상 강박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박해가 일어나면 신자들이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였다. 정부 당국에서는 천주교 신앙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정부는 신자들을 ‘회오’시켜 ‘사학’인 천주교를 버리고 ‘정도’인 성리학적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회유하고 고문하였다. 당시의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그 ‘범죄’를 다스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였다. 100여 년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진행되던 박해에서 얼마나 많은 신자가 체포되었고 자신의 신앙을 유지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866년에 발생하여 수 년 동안 지속된 박해 과정에서 서울의 좌우 포도청에 체포되었던 신자들에 관한 기록을 분석하여 이에 관한 이해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 계속 >

고통 없는 기쁨, 희생 없는 사랑이 있나요?

왜 하느님의 아드님이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을 감수하셨을까요? 신적 존재란 죽음도, 고통도 겪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죽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왜 고통과 죽음이 필연적인 것일까요? 고통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는데 아무런 가책도 아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죽은 사람도, 나도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밤늦게 돌아오는데, 남편이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아내가 병으로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무런 아픔도 걱정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만큼 고통을 겪게 되어 있나 봅니다. 우리 사는 인간 세상은.

혹자는 고통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의 바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행을 시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니까요. 사실 훌륭한 인물이란 고통스러운 일을 잘 겪어낸 사람들이더군요. 그리고 보니 고통 속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탓일 수 있습니다. 연필을 깎다가 실수해서 손을 베이는 아픔을 겪습니다. 운전을 잘못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내가 잘못하든, 다른 사람이 잘못하든, 그것이 도덕적이든, 물리적이든 그 결과로 고통이 닥칩니다.

나의 잘못도,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닌데 닥치는 고통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

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요한 9,3)

그리고 보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인가 봅니다. 대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27-28)

희생의 의미도 있습니다. 영화감독 타르코프스키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살만하다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의 노력과 피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힘들고 불편하다면 누군가가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죄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분의 수난과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사악의 희생보다 더 큰 아버지 하느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무엇보다 우리 인간 세상의 고통이 왜 있냐는 물음에 대한 하느님의 답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조규만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박희자 마리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손석 스테파노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정인옥, 강혜원 이민상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유민상 안토니오	한경숙 안나 이순자비비안나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비비안나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제물봉헌자			토복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오늘 사제가 축복한 성지(聖枝)는 내년 제의수요일 전 주일까지 잘 보관하십시오.

성삼일(목,금,토)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의 전례 주년 가운데 가장 경건한 시기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 성삼일(The Easter Triduum) 전례

-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 : 3월24일 오후 8시
(밤 9시30분부터 수난감실 성체 조배)
*사순절 희생 애గు 봉투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식 : 3월25일 오후 8시
* 미사는 없으며 십자가 경배와 영성체 예절이 있습니다.
* 예절 중에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수난예식에 앞서 오후 3시 : 전신자 십자가의 길
- 성 토요일 부활 성야미사 : 3월26일 밤 9시

◆ 부활 대축일 미사(3월27일) : 오전 9시30분, 오전 11시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 대 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 교실, 화장실, 부엌, 친교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 청소합니다.

- 일시 : 오늘주일(20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 반별로 배정
(소공동체에서 점심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열심히!)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아치 에스 행사안내

- 일시 : 오늘주일 (20일) 2시
- 준비물 : 정장, 묵주
- 대상 : 레지오 단원 및 협조단원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엠마오스 여행 초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엠마오스 여행에 초대합니다.

- 일시 : 3월 28일(월,당일) 8시 성당출발, 저녁 6시 성당 도착
- 여행지 : 팜스프링 Aerial Tram 케이블카
- 회비 : \$30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시간 임시변경 : 평일 미사 29일(화), 30일(목), 4월 1일(금) 없습니다.

◆ 성혈봉사자 모집

본당 교우이시며 50세 이상 되시는 분 중 성혈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신부님의 면접과 교육 후 봉사자로 임명될 것입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 20일 * 토서2반 : 북어국 (\$ 0 free)
* 주일학교 : 치킨샐러드샌드위치 (2학년)
- 3월 27일 * 토남 3반 : 소고기 미역국 (\$ 0 free)
* 주일학교 : 후라이드 치킨 (자모회)

수난감실 성체 조배 시간표 - 3월24일(성 목요일)/25일(성 금요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9:30 ~ 11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P.V.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토런스 남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하버/카슨
성 금요일 자정 ~ 새벽 1시	토런스 서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토런스 북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토런스 동	성 금요일 아침 5시 ~ 6시	구역의 / 전례부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상기 김옥찬 김 욱 김원규 김원호 김윤진 김정웅 김정희A 김정희Y 김진우 김현숙 남명자 민성원 박씨니 박음전 박정자 박혜정 석순영 송기철 신경훈 안민수 안태갑 오수인 원건희 이남현 이명선 이상곤 이영희 이일길 정동호 정인욱 정정현 정훈모 최수복 최지영 최희숙 황지영 송마이클	성전헌금	김상기 김윤진 김정희A 김현숙 남명자 박씨니 박음전 박정자 석순영 신경훈 안민수 안태갑 오수인 원건희 이남현 이명선 이상곤 이영희 이일길 정동호 정인욱 정정현 정훈모 최지영 황지영 송마이클
	합계:\$3,470		합계 : \$1,775
주일미사헌금 : \$2,457		성물판매이익금 : \$306.10	

◆ 주일학교 첫 영성체 반 학부모 간담회

주일학교 첫영성체반과 첫영성체 특별반 학부모님들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 학부모님과 소통하는 자리이니 첫영성체 대상자 학부모님께서는 필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3월 27일 부활절 일요일 학생 미사 후
- 장소: ROOM 7
- 대상: 올해 첫영성체 & 특별반 학부모님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시험
일시: 3월 20일 (주일) 오후 1시30분~3시
장소: 강당
2. 백삼위 한국학교 단어경시대회
일시: 3월 27일 (주일) - 각 반별로 진행
3.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I, II)
일시: 4월 16일 토요일

남가주 소식

◆ 2016 FIAT 장학금 프로그램

- 신청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 북미주거주 코리안 어메리칸 신학생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 신청문의-scholarship@fiat.org (714)702-9830

◆ 2016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 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9th~11th)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 신청문의-service@fiat.org (714)702-9830

◆ 제 3회 학생 성화 미술대회

- 대상: 유치부, 초등부(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학생
- 주제: "예수님 이야기" ● 작품크기: 24x24 인치이내
- 참가비: \$10(Pay to : Mee Lee)
- 접수기간: 4월 15일 ~5월14일
- 문의: 가톨릭 미술가회 ☎(909)576-5773, (562)292-8999

◆ 주사위 가족모집안내

- 주사위란 "주님 사랑을 위하여" 의 약자로 주님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기 위하여 모인 남가주의 천주교 생활 음악 단체입니다. 정기공연과 음악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함께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남녀보컬 각2명(오디션있음, 지정곡, 희망곡)
연출담당: 1~2명
- 자격: 30~40 세 가량의 가톨릭신자
- 신청: jusawill122@gmail.com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강순복 요세피나991-4838 3/19(토) 오후 5시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신증철 아브라함781-0787 3/12(토) 오후 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560-7120 3/13 (금) 오후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박동수 베드로 218-7340 3/19(토)오후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이재호 펠릭스 909-557-7490 3/12 (토) 오후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크리스티나 (레지나) 3/11(금) 오전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십자가의길'로 대체 3/18(금)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 데레사 634-6923 3/8(화) 오전11시, 성당
	3	김유미 사비나 850-2822	'십자가의길'로 대체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이복임 엘리사벳 3/14(월) 오후 7시,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1 /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12(토) 오후 7시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유현화 리더아541-4305 3/12(토)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안민수 베드로 793-6157 3/12(토) 오후6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허윳다 890.-1778 3/13 (일) 오후2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십자가의 길 3/12 (금)오후 7시30분, 성당

이번주 단체 모임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 회의	1시
-------	----

성주간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한 주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하여 지상 생활의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이룩하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경축합니다.

▶ 파스카 성삼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파스카 신비를 기리는 3일로 '주님 만찬 저녁미사'부터 시작하여 '예수 부활 대축일' 제2저녁기도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 주님 만찬 성목요일: 3월24일

예수님께서 수난하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말씀 전례 후에 발씻김 예식을 거행하며, 영성체 후에 성체를 수난감실에 모시고 성체조배를 합니다.

▶ 주님 수난 성금요일: 3월25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교회 전통에 따라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고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만을 거행합니다. 예절 중에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금식과 금욕을 지키는 날입니다.

▶ 성토요일: 3월26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쉬시고 저승에까지 복음을선포하신 것을 묵상하며 부활의 실현을 희망하는 날입니다.

▶ 부활 성야: 3월26일

교회는 가장 장엄한 전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밤을 기념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참된 승리와 해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성지 가지를 바라보면서

해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맞이하면 내 마음속으로 갖는 주님 수난의 의미가 또 다시 새로워진다. 성지 가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나 또한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으며, 내 못된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아 성전의 십자가상을 바라볼 적마다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만왕의 임금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환호를 지르던 그 수많은 인간들이 순식간에 돌변하여, 가장 악독한 사형수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함성이 아직도 내 귓가에 생생하다. 그 장면을 연상해 보면 너무나 짐승만도 못하면서, 가장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이기에 내가 그 무엇이 잘 나서 그 어느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싶다. 그저 두 눈만 감박거릴 뿐 금세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렇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하면서 갖은 봉사와 희생을 다 하지만, 그저 일회용 형식에 그쳐버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금방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다. 예수님이

겪었던 그 죽음을 향한 수난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아니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핏자국은 아직도 붉은 빛으로 물들어 석양빛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죽음과 부활이라는 새 생명의 잉태로 인간은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았지만 성지 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죄로 물들어 버리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성지 주일에 받은 성지 가지를 소중히 집으로 모시고 와서 십자가 상에 고이 꽂아둔다.

날마다 성지 가지를 바라보며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주님 수난을 항상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 날마다 지은 내 죄를 회개하고 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가시밭길 같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나는 "제 마음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하면서 기도한다.

믿음이 자라날수록 내 자신이 더욱 부끄러워지고 항상 내 뒤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스티파노야, 무엇을 하든지 겸손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움을 느낀다. 오늘도 나는 성지가지를 바라보면서 험한 세상에 고통에 빠져 있는 이웃들에게 진정 이웃이 되어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하며,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부활의 새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

◆류명선 스테파노 / 교구평협 기획분과장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1코린 5,7)라는 말씀의 '파스카'는 무슨 의미입니까?

☞ '파스카'는 '거르고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의 히브리 원어가 라틴어로 음역된 말입니다. 혹독한 노예 생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선조의 고역을 보신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실 때(탈출 5-12장 참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하셨지요(탈출 12,14 참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사도 2,21)는 하느님의 독특한 방법을 세상에 밝히신 사건의 예표입니다. 하느님께서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어린 양의 피'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피로 완성된 것이지요. "고난을 겪기 전에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루카 22,15) 바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1베드 2,9)가 되는 은총을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매일의 일상에서 생명과 광명의 삶으로 '건너'가는 파스카를 살아야 할 명백한 이유입니다. 길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복된 달음질을 계속하고 계신지요?

◆가톨릭 부산 주보 / 소곤소곤

신앙과 학문의 인물, 아폴로

에페소에는 아폴로라는 유다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약성경에 정통하고 설득력 있는 웅변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폴로는 완벽한 자질을 갖춘 사목자였습니다. 에페소에 오게 된 아퀼라 부부가 마침 그곳에서 아폴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폴로가 학식이 많고, 성경에 정통한 것에는 호감이 갔으나 그의 설교에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신경 18,1-25

아폴로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퀼라 부부는 아폴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퀼라 부부가 “저희는 당신의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늘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충고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아폴로는 “그럼요, 얼마든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퀼라 부부는 아폴로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신경 18,26-28

아폴로는 마음으로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비로소 아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배워 신앙에 있어 성숙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폴로는 보기 드문 학자이면서 아퀼라 부부에게 하느님의 길을 배우는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폴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사도 바오로는 어디에서 선교를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신경 19,1-20

코린토 교회 안에서 아폴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아폴로의 설교는 풍부한 성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폴로를 내세워 하나의 파당을 만들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당시의 코린토 교회에는 메트로파, 바오로파, 아폴로파, 그리스도파 등의 당파가 난립하여 서로 분쟁이 심했습니다. 자칫 교회가 분열될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다.”며 아폴로의 활동을 칭찬했습니다. 결국 아폴로는 바오로의 유력한 협조자가 된 셈입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들을 살펴보다가, ‘()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도 17,23)

그렇지만 ()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이시며 하느님의 ()이십니다.

(1코린 1,24)

◆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성인말씀

성덕은 이마와 영혼의 땀으로 먹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영혼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가끔씩은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땀과 번민에 동참하게 됩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chools.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b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 & 마리아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Bl. #1110 LA(에퀴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 (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8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혜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매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블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